

왕십리

2005년 5월호



사랑과 감사로 가족을 세우는 달

내·마·음·의·풍·경



사랑으로 부르는 행복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한 행복을 부르는 소리랍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글·시진 / 차주영

부리는 자는 말씀을 부리는 것이라
[막 4:14]




내 마음의 풍경 / 사랑으로 부르는 행복	2
목회컬럼 / 꿈 씨앗	4
QT / 바르게 전하는 믿음	5
순교자 열전 / 돌아온 탕자(2) - 박관준 장로편	6
왕십리블로그 -1/ 감동 그 자체입니다.	8
선교사 편지 / 엘리야의 심정으로	9
성경인물 / 정장차림의 뱀, 가인	10
왕십리 이모저모 / 부활의 기쁨 온누리에, 도서관 1만권 장서등록 제 1차 대부흥 선교의 밤 100주년 기념위원회 중앙교회 원로들과 좌담회 상반기 12지파 새벽 부흥회	12
왕십리블로그-2 / 자식에게 해서 않될 5가지의 말 9일 동안 천국 만들기	16 17
수필 / 자라지 않는 엄마	18
건강상식 / 차아 교정의 시기	19
가정예배 /	20
책소개 /	24
음반소개 /	25
광고 / 비전스쿨	26
요리 / 연어레몬구이	27

꿈 씨앗



봄이 되고 여름이 오면서 어김없이 산과 들, 아파트의 뜰, 온갖 차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의 모퉁이에까지도 꽃들이 피고, 나무의 잎이 푸르러진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희망의 숲 가꾸기 행사가 1999년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 전까지 몇 년 간에 걸쳐 진행될 때 교회로서는 유일하게 왕십리교회가 참여하곤 했었다. 그 때 참가한 모든 분들이 서울시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수많은 풍선에 꽃씨를 담아서 공중에 띄워 보냈다. 높푸른 하늘, 구름이 가슴을 여는 저 아득한 공중으로 자그마하게 사라져가는 오색 풍선들을 보면서 작별의 아쉬움과 아울러 소망의 꿈 씨앗들의 울동을 느꼈던 것은 그 만큼 주변에 이미 꽃핀 나무들이 씨앗자녀들의 날아오름에 보람을 얻는듯 보였기 때문이다. 하늘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가서 온 땅에 퍼지는 꽃씨들의 궤도. 그 궤적은 피터 팬의 요정보다 더 아름다운 빛의 가루들을 함께 뿌려내는 꿈의 무지개였다. 꿈 씨앗의 해방감이 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 온 땅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흩뿌리는 폭발된 풍선들, 하나 둘 셋 넷……. 그 폭발과 함께 속에 담긴 꿈 씨앗은 세상을 내려다 보며 하강하

기 시작하였으리라. 꿈나무들을 키워주는 뿌리가 되고자.

꿈 씨앗. 높이 날아올라가서 하강하는 꿈 씨앗을 따라가고 싶다. 그 궤도에 오르고 싶다. 세상을 마음껏 벗어나보고 싶다. 그리고 한없이 맑은 바람에 나를 씻고 다시 하강하고 싶다. 꿈이 심어지고 꿈을 키우도록 영접하는 그 모든 땅 끝을 향해 말씀의 꿈 씨앗을 담고 성령의 낙하산을 펴고 바람 날개 소리를 내며 내려왔고 싶다. 꿈 씨앗을 담은 풍선이 나를 싣고 가장 신령한 영성의 하늘, 그 곳으로 다녀오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 높은 뜻으로 나도 꿈을 안은채 다시 하강하면서 한 알이 심어지고, 썩어지고, 짝을 내고, 수많은 꽃과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고 싶다. 꿈 씨앗들을 수없이 온 땅에 퍼뜨리는 그 꿈 나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루고 싶다. 정말 그분의 꿈으로 채워진 그분의 꿈 씨앗들의 저 높은 상승과 저 넓은 하강의 궤도에서 온 땅을 덮어 나가며 뿌려지는 꽃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고 싶다. 아름다운 이들이여……. 



바르게 전하는 믿음

(창40:1~23)

[내용 요약]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거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왕의 술 말은 신하와 뺨급는 신하가 잘못해서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왔고, 하필 거기서 요셉의 시중을 받게 됐죠. 뿐만 아니라 꿈을 똑같이 들어서 같은 날 꾸게 되고, 요셉이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고, 해석한 대로 술 말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뺨 말은 관원장은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복직된 술 말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8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꿈쟁이 요셉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했으니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신 이후로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던 시절이 바뀌어 지금은 죄인의 신세에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온데간데 없고 이국땅에서 처량한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즉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결하였습니다. 그 성결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 기도하라는 지시입니다.


요셉은 그 즉시 해몽해 주었죠. 그러나 우리

가 해몽을 못하면 기도하라는 지시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요.

2) 다른 사람과의 관계회복을 도우십니다.

특히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설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알려줍니다. 그로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영역이 생기겠죠.

3) 하나님은 내게 성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14-15절).

올해 들어 계속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 사람, 저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의 내 노력이 있을 지라도 일이 성사되려면 1%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요셉을 닮기 원합니다. 이번 달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리라 믿었지만 오늘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부족하지만 주님앞에 서기 원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수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임금, 바로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는 것 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2)

- 박관준 장로 편 -

돌아온 탕자 (1)
돌아온 탕자 (2)
돌아온 탕자 (3)

이 글은 총회순교자기념사업부의 순교자 전기 4 '예배당을 빌려 줄 수 없소' 중 박관준 장로님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1.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

허탈하게 돌아가는 선교사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마치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과 같이 기세등등한 나에게 소리가 들렸다. “절벽 유위면 혈벽입하라” 나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며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한문으로 적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 그 뜻은 방탕한 내 생활과 나무에 달린 예수의 이야기였다. “바울이 그랬을까?” 나는 심히 떨리고 당황스러웠다.

허탈하게 돌아가는 선교사의 발걸음이 췌가를 스치며 그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다.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다시 방탕한 삶을 벗어나고, 다가올 사망의 형벌을 단 꿀과 같이 여기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방향을 돌렸다. 나는 마음속에 울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그날의 교훈을 하나님의 특명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아내는 나를 잠시 바꾸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곧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개종을 결심하였고, 1907년 장대재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시기에 학습과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만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사람들을 도우며 전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의학공부를 시작했고 3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양복을 입고 축음기를 들고 고향에 돌아가자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신기한 축음기의 소리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원을 개원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지었다. 아직까지 목회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지라 나는 그곳에서 매주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도 탕자인 나를 지켜보시며 그만큼 아파하셨겠지. 아버지니까…….

깊은 고민이 있었다. 바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3형제나 주셨지만 모두 일찍 죽고 말았다. 아내는 한나와 같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 새벽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저 죽은 아들들을 가슴에 묻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다. 40이 넘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나는 잘 운영되는 병원과 무력무력 자라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저 이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러나 이 행복한 7년은 나를 무디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행복에 안주해버린 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 바로 그 때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약을 잘못 지어주어서 환자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적적으로 환자가 살아났다. 이 심각한 위기는 하나님 앞에 무더진 영적 상태를 깨우쳤고 잃어버린 열정을 찾게 하였다. 나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내가 생활에 만족하며 안주해있는 모습을 보며 지금은 더 이상 설 때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아직 생명이 있다면 사명도 남았다는 생각을 했다. 병원을 폐업하고 개척 전도를 시작하였다. 바울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전도를 시작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도 할 수가 있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던중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눈을 쓸다가 넘어져 늑골이 두개나 부러지게 되었다. 내 기술이나 병원의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하나님께 계속 회개를 하였다. 지금껏 생활비를 걱정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다. 20년 경력의 의사인 내가 환자 앞에서 그것도 날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던 아내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아내의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낮게 되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앞에서 나의 의술이란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스스로를 높이던 교만을 하나님께 들켜버린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20년동안 복음을 전하면서도 지금까지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내 공로가 아닌데 내 힘이 아닌데 난 왜 하나님의 일은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어느 순간 내 의와 내 공로에 가려 하나님을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생활을 걱정하던 아내는 믿음을 타냈지만 사실 내게는 타할 만한 믿음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3. 아들의 가는 길, 아버지의 마음

1934년 가을 평남 개천읍내로 이사를 하였고 개천읍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아들은 20살이 되었고 아내는 60살이 넘었다. 아들은 청년 운동을 활발히하는 지도력이 있는 인물로 자라주었다. 더욱이 곧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어 그 녀석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늦게 얻은 외아들인지라 그 녀석을 바라보는 내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뻐다. 그런데 아들은 시골 교회 전도사로 사명을 받고 시골 교회로 떠났다. 미혼인 아들의 식사를 위해 늙은 아내도 시골로 내려

갔다. 성공할 수 있었던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 녀석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그곳에서 야학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일본 경찰들의 감시 속에 놓인 아들에게 나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농촌 개척 전도를 하거라. 유학은 그 이후에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다. 예수 위해 고통 속에 더 머물러 있으라고 떠미는 아버지를 어찌 받아들일지. 아들이 견뎌야 할 시간이 내가 견뎠던 시간보다 더 괴롭게 다가왔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나보다. 하나님께서도 탕자인 나를 지켜보시며 그만큼 아파하셨겠지. 아버지니까……. 

감동 그 자체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에 있을 셀 모임을 위한 준비 모임이라고 하지요. 이 날은 모든 색션 리더들이 다 오는 날입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셀 리더 모임에 못 나올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 아침 셀 리더 모임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에 결혼해야 할 셀 리더인 z형제가 셀 리더 아침 모임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물었지요. 왜 왔냐고? 대답이 간단하였습니다.


‘시간이 됐잖아요.’

어느 누가 결혼 당일에 리더 모임에 빠진다고 뭐라하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청년들 가운데 열심이 있다는 리더들이 결혼 전날 금요심야기도회를 나오는 경우는 보았지만 결혼 당일날 나온 리더는 정말 처음입니다.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리더 모임에 임신만삭인 자매가 끝까지 나왔다가 거기서 아이를 출산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리더들도 그 이후로 리더 훈련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읽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애 낳는 일보다 더 큰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지방에 출장갔던 이들이라도 훈련이 있는 날이 되면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오늘의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리더모임에서 애낳은 자매는 아직 없지만, z형제의 결혼일 아침에 보여준 모습은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폭발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한 부흥이 올 것입니다.

z형제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혼 여행 잘 다녀오세요. 



엘리아의 심정으로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 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 선교게시판의 선교사 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선교기지가 있는 갓사스 지역에도 비가 오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많은 샘들이 일찍부터 말라 버렸습니다. 풀도 말라 죽어 가고 이제는 먹을 풀을 찾아 해매는 가축들도 힘들어 하는 모습입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벌써 지나 버렸지만 비가 올 기색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아 다녔는데, 마을 어른들마다 가뭄에 대해 큰 근심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한 두 주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죽어 버릴 것이라고 한 노파가 탄식을 합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기 원하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더러는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누군가에게 돌리기를 원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이곳에 들어 와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돌을 많이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모아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신변이 위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우리로 보고 우리를 제거하려고 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다고, 이상한 병이 생겼다고, 심지어는 결혼한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그 문제의 이유를 다른 누군가

에게 두고 그를 살해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속히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아와 같은 믿음은 없지만 엘리아가 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 이틀 지난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멀리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선교사는 기뻐하면서도 마음 속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며 지은 죄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비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사나운 천둥과 번개, 폭풍을 동반한 비였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초가집 지붕이 날아갈까봐 초가에 벼락이 떨어질까봐 사뭇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49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모아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장차림의 뱀, 가인

가인은 사이코패스인가?

1. 사이코패스란?

‘사이코패스’(psychopath)란 걸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 사회적 성격장애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20년대 독일학자 슈나이더다. 그는 발정, 광신, 자기현시, 의지결여, 폭발적 성격, 무기력 등 10가지 특징을 사이코패스에 속하는 인격 유형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범죄 심리전문가 니시무라 유키는 사이코패스를 “정장 차림의 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정신병질은 내부에 잠재돼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일보, 2005년 4월 10일자)

지난 달 미국에서 희대의 연쇄살인범 ‘BTK(묶고 고문하고 죽인다는 뜻으로 범인이 스스로 붙인 이름)’가 검거되었다. 1974년부터 최소한 10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31년만에 붙잡힌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그가 ‘두 자녀와 부인을 둔 주립대 출신의 50대 가장이며, 보이 스카우트 출신의 평범한 시청 공무원이자, 25년 동안 마을 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유명철도 3차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유명철의 첫인상도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한다. 그는 두려움과 망설임, 조금의 후회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이코



패스에게
는 양심을 느

끼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기만족에 젖어 자기를 드러내려는 특징을 지닌다. 유명철이 자신의 살인을 후회하기 보다는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와 부자들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2. 성경 속의 사이코패스 가인

위와 같은 충격적인 기사를 읽으면서, 목사라는 직업병(?) 탓인지 몰라도, 이 사이코패스라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묵상하게 되었다. 사이코패스는 인구의 1%로 추정되며 범죄자 중에서는 3~4명 중 1명꼴로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무심하며, ‘욱’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기 죄에 대해

성경은 가인이 사이코패스가 된 원인을 “유전적 요인”에 두지 않는다. 성경은 결코 전두엽의 크기나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은 가인이 사이코패스가 된 원인을 “죄”라고 지적한다.

둔감한 사람이 과연 어디 1%뿐이겠는가 싶어 두려워졌다.

성경 속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가인을 들 수 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그 동생 아벨을 죽인다. 아벨의 감정에 가인은 공감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답함으로써 살인에 대해 둔감한 양심적 반응을 보여준다. 유영철과 BTK처럼,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평범한 농부의 가면을 쓴 사이코패스였던 것이다.

지난 4월 10일 방영된 KBS 스페셜 “악의 가면 사이코패스”라는 프로그램은 사이코패스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제시한다. 1%의 유전적 요인을 타고나는 사이코패스가 있지만(전두엽의 크기, MAOA유전자, 세로토닌 호르몬), 음울하고 어두운 “환경적 요인”을 피할 수 있다면 순기능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인 나는 이러한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볼 때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누구나 역기능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3. 가인이 사이코패스가 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살인에 대해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못한 인류 최초의 사이코패스이기도 하다. 과연 그가 사이코패스가 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였을까?

아담(가인의 부친)에게 사이코패스를 유발할 유전적 요인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 성경은 가인이 사이코

패스가 된 원인을 “유전적 요인”에 두지 않는다. 성경은 결코 전두엽의 크기나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은 가인이 사이코패스가 된 원인을 “죄”라고 지적한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이 사이코패스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인 자기과시의 증세, 곧 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성경은 인간의 원죄를 유전자 조작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인간 본성은 그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렇기에 생물학적 사이코패스는 1%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100% 사이코패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가인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고 단지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했다. 이러한 가인의 죄악이 그를 사이코패스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기중심적 사이코패스라는 신학적 요인을 물려받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삶만 살아간다면, 사이코패스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이 싸움에 진 가인은 정장 차림을 한 뱀의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정장으로 가면을 쓴 이 뱀은 신처럼 군림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부활의 기쁨 온누리에

지난 3월27일 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다.
각 주일학교마다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고등부

학생들과 어울려 드리는 ‘드라마 예배’를 드렸다. 한 주전부터 ‘태신자를 위한 릴레이 기도’로 시작된 이번 부활절 행사는 ‘드라마 예배와 태신자 걱정식’이 백미였다. 드라마 예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역을 맡은 친구들이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어 목사님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말씀 후에 추수감사절 대축제를 향한 태신자 걱정식을 거행하고, 태신자들에게 줄 계란 포장과 부활절 카드 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추수감사절에 많은 태신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헌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중등부

‘부활주일 친구초청잔치’를 개최하였다. 영상을 통한 메세지 전달과 뜨거운 찬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동계수련회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어 한달전부터 기도와 설교시간을 통한 친구초청의 의미를 전달했으며, 장기 결석자들은 담당 선생님이 돌아보고, 친구초청은 중등부 친구들이 담당하였다. 부활절을 계기로 중등부에서는 4월 한달을 전도의 달로 정해서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초등부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 아래 ‘특새 훈련’ 및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 ‘광야교회 노숙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새’는 3월21일부터 26일 새벽까지 2005년 ‘12지파 특별 새벽기도’에 매일 10여명의 초등부 학생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고, 26일에는 24명의 초등부 학생들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부활주일 계란 콘테스트’는 각자 집에서 예수님께 드릴 계란을 바구니를 이용해 만들어 와서 서로 겨루는 행사였으며, ‘광야교회 노숙자 체험 프로그램’은 ‘부활주일 계란 콘테스트’를 통해 예수님께 드린 계란 바구니를 들고 광야교회(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임명희 목사 시무)를 방문하여 0.5~1.5평되는 쪽방에 기거하는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쪽방체험’ 행사를 가졌다.

단순히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수동적인 행사에서, 집에서 계란을 삶아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께 드리고, 주께 드린 성물을 소외자들을 찾아 전달하는 초등부의 이번 행사는 그 어느해 보다 부활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아닌가 싶다. 




유년부

마태복음 28:6절을 통해 “달걀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살피고, 각 가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릴 계란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으며, 황학동 노인정 3곳을 찾아 콘테스트한 계란을 돌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다. 




유치부

예년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계란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부활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 1등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컨셉으로 잡은 작품이 뽑혔으며 이날에 출품된 예쁜 계란들은 소외된 이웃친구들이 있는 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아울러 이 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도 있었다. 




출애굽 찬양대

4부 찬양예배때는 부활주일 칸타타가 있었다. 청년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출애굽 찬양대의 이번 찬양은 하나의 레파토리가 아닌 여러 찬양(호산나!(Hosanna!), 나를 기념하라(Remember Me), 아버지의 뜻대로, 보라 어린양을 (Behold the Lamb), 주님 나라이루게 하소서(Josephs Vision)을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드림으로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 도서관 1만 권 장서등록

지난해 3월 28일 교육관 4층에 개관한 왕십리 도서관이 꾸준한 성도들의 관심과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드디어 장서가 일만권으로 늘었다. 지난 4월 17일 **일만권 자축회**를 담임목사와 봉사자들, 그리고 도서관 이용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었다.

이번 장서 등록의 의미는 별도의 큰 예산없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기증을 받아 일만 권 도서를 등록하는 기쁜행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서의 수가 증가하는 기쁨 못지않게 많은 성도들이 자주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알게 했던 귀한 시간이었다. 향후 도서관이 성도와 이웃이 보다 편히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1층이나 이웃 봉사관등) 이전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게 해주었다. 이날 자축회에서 담임목사의 기도와 일만권째 장서에 도장을 찍고 바코드리벨을 붙이는 등의 순서와 봉사자들 소개, 그리고 조촐한 다과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일만권째 등록 도서는 로이드존스목사의 『담대한 기독교』였다. 



도서관 봉사자들




일만권째 등록을 하시는 담임목사



등록절차를 마친 책을 서고에 꽂는 박영하장로

▶ 제1차 대부흥 선교의 밤 성대하게 열려

지난 5월 6일 본당에서는 현 GMS 총무국장이며 총회 중국선교사 대표지역장을 역임한 최병국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대부흥 선교의 밤 모임을 가졌다. 이는 5월 29일~7월 10일까지 있을 총회 선교대회에 앞서 그 첫 모임을 본 교회에서 갖게 된것이다.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본 모임은 최병국목사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활동중 중국 공안에 잡혀서 그간 이뤄는 직업학교와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 등의 성과들을 모두 압수 당하고 14일간 취조를 당하다 쫓겨난 위급한 상황등, 간증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선교의 비전들을 들을 수 있었다. 늦은 시간 담임목사의 금요 심야기도로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선교후원국의 국기들



간증을 하시는 최병국선교사




기도중인 성도들

▶ 100주년 기념위원회 왕십리중앙교회 원로들과 좌담회

한 교회에서 출발하여 부득이하게 왕십리중앙교회와 왕십리교회로 나뉘어 지내던 두 교회가 2008년 100주년 기념 사업을 앞두고 역사 편찬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저녁 7시30분에 중앙교회 원로 6분과 오치용 담임목사, 100주년 준비위원회의장인 김영문장로, 그리고 100주년 준비위원들, 본 교회 교역자들이 당회실에서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실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상황들을 또렷이 기억하는 원로들과 과거 선생님과 제자로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정겨웠다.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며 좌담회가 시작되었다. 아쉽게도 본 교회의 원로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주로 중앙교회 원로들로부터 초창기의 상황들을 듣는 시간들이었다.

좌담회에서는 고 서재신 원로목사가 무학교회 시무중 6·25이후 성동구지역 교회의 복구를 위해 상경했다가 왕십리교회에 머물러 시무하게된것과 무학교회가 본 왕십리교회의 교인들중 일부가 기도회로 모이다가 교회로 인가되었다는 부분등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그의 1907년 대부흥운동과 본교회의 관계등을 짚어보았으나 뚜렷한 관계는 찾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은 아주 초창기때를 증언해주실 분들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점과 두 교회가 갈라서는 시점의 증언에는 아직도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왕십리교회 70년사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점검하고 작은 차이 등을 보완하기도 했던 이 날의 모임은 10시30분에 되어서야 끝나는 열띤 시간이었다. 좌담회가 끝난 후 일만권장서를 등록한 도서관을 구경하고 앞으로 서로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는 약속을 뒤로하고 늦은시간 모임을 마쳤다. 



사회를 맡은 100주년준비위원회 김영문장로 와 담임목사



왕십리중앙교회에서 오신 원로



초창기 역사를 정리한 프린트물을 참고하며 좌담회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WANGSIMNI 15

▶ 상반기 12지파 새벽 부흥회

지난 3월21일부터 4월4일까지 15일간 ‘하나되라!’는 주제아래 2005년 상반기 12지파 새벽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이후까지 진행된 이번 새벽 부흥회는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부활로, 화평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되자는 설교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되게 하소서’,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진로와 장래를 형통케 하소서’, ‘삼인의 교회로 대부흥케 하소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라는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새벽 부흥회는 예년과는 달리 초등부(지도 김희정 전도사)의 ‘특세’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새벽에 10여명의 초등부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오치용 목사는 매일 초등부 학생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청년들의 참석이 많아져 예년과는 사뭇 다른 2005년 새벽 부흥회였다.



자식에게 해서는 안될 5가지의 말

게시자 : 한 규 상장으로 작성일 : 2005-04-07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속담 가운데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의 위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칭찬하는 말을 해주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가?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언짢고 의욕이 사라지는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듯 다른 이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 말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처가 쌓이고 쌓여 서로간에 건너지 못할 강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나타난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될 말을 쏟아부었는지 모른다.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상처의 홍수에 잠겨 인성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미국의 한 여성지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할 다섯가지 말’을 발표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은 다음과 같다.

1.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자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아

가는 무서운 저주의 말이다.

2.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말하면 자녀는 금방 부모에게 반감을 갖는다.

3. “내가 도대체 몇살이니!”


정신연령을 거론하면 그 아이는 점점 비관주의자가 된다.

4.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항상 자신감이 없다.

5. “시끄러워!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

자녀들은 항상 엄마에게 관심이 많다. 대화를 원한다. 그러나 대화를 거부하면 그 아이는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지키기에 그리 어려워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직접 키우다보면 엄청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 이 땅의 부모들일진데 때로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할 것이다. 무의미한 상처를 계속 줌으로 좋은 인성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 나라의 재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9일 동안 천국 만들기

게시자 : 곤뉴스 / 이한규의 사랑컬럼에서 작성일 : 2005-04-06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판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 부인이 “예!” 하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애야!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애야! 애들이 맘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게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주어볼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라.”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네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집을 돌아보니 깨끗한 집에서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

으로 떠나고 싶지 않을 뿐만아니라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래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희생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입니다. 희생의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걸 때, 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희생은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을 각오할 때 행복의 신비가 찾아옵니다. ‘자기 몰입의 신비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하지만 ‘희생의 신비를 아는 자’는 되어야 합니다. 살고자하면 죽고, 죽고자하면 삽니다. 더 나아가 죽이고자하면 죽고, 살리고자하면 삽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잘 소화하는 소화력이 있을 때 행복의 키가 부쩍 자라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엄마

가족들과 둘러앉아 TV를 보다가 무심결에
“저 사람 참 못생겼네.” 라고 말했습니다.
곁에서 퍼즐 맞추기를 하던 이삭이가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바로 어제 아이들이 우린 누굴 닮았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설
명해 주고서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지요.

엄마와 아이의 차이가 여실히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아이는 믿음으로 가슴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지난 해, 북한어린이 돕기에 사랑의 빵 저금통을
가득 채워 보낸 아이는 지금도 심부름을 하고나면
콧노래를 부르며 저금통에 용돈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북한의 실상이 담긴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렸고
아이는 바로 저금통에 사랑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지나다 만난 노숙자들 곁에 앉아
기꺼이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아이.
곁에 선 엄마는 아저씨들 몸에 깊이 베인 냄새를
빨리 피하고만 싶은데 아이는 자기 가진 것
다 드리고서 엄마도 도와드리라고 말합니다.

평소 제가 다 가르친 것이건만
정작 실제상황을 마주 한 엄마는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몇 달 전, 동안교회에 들러 몸이 불편한
혜경누나의 휠체어를 몇 번 밀어주더니
아이들은 지금도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혜경누나가 다시 일어나 걷기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약속 해 놓고서
늘 까맣게 잊곤 하는 엄마를 파악이라도 한 듯
잠자리에 들기 전 품에 안긴 아이들은
그렇게 제가 잊은 제목들을 종알종알
기도로 꺼내 놓곤 합니다.

제 안에 있는 어설픈 지식들을 다 내려두고
저 아이들의 큰 믿음을 사고 싶습니다.
앞뒤로 넘쳐나는 꾸밈말 없이도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부럽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가는데 엄마는 요즘 도대체
자라질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처럼 까먹지 마시구요.^^



치아 교정의 시기



요즘은 자녀가 한 두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녀들의 치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더군다나 시대가 외모를 중시하는 때라 고른 치아에 대한 열망도 작지 않다.



빠져나간 치아는 심미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이나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정치료는 종종 요구되어진다.


교정치료를 하는 시기는 7~ 8세에 하는 조기치료와 13세 이후에 하는 만기치료로 나눈다.

조기치료는 치아가 담겨있는 윗턱뼈와 아래턱뼈의 성장차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성장이 크

게 일어나는 직전인 7, 8세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턱이 과도하게 자라서 생긴 주걱턱등을 미리 막는 치료이다.

만기치료는 턱뼈는 정상인데 단지 치아만 빠졌어진 경우에 하는 치료로 영구치가 다 나는 13세 이후에 하는 치료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기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저수지의 댐이 조그마한 구멍으로도 무너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부모님의 관심이 요구된다. 



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19:26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19: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19: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시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가 정 예 배 첫째 주

다 이루었다


성경 / 요한복음 19:25-30 · 찬송 / 178장, 179장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의 행틀을 지시고 군병들에게 이끌려 사형장인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골고다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맨 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취된 상태로 죽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취된 상태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는 붉은 피가 솟아나왔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모두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사53:5).

무자비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네 조각으로 찢었으며 속옷은 누가 얻나 예비뿔자 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장난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채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벗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우리에게 모두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사랑하던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존경받고 대접을 받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았고, 제자된 것이 자랑스러웠으나 그 주님이 심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실 때는 제자된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는 경건한 여성도들과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할 때에 어진 아내를 알 수 있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충신을 알 수 있으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성도는 교회가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에 더욱 충성하는 것입니다. 

6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611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아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614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6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619 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619 또 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6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

가 정 예 배 **둘**째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경 / 에베소서 6:10-20 · 찬송 / 182장, 183장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와 마귀로 더불어 싸우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합니다(14절).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함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만 의지하고 거기에 매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는 방탄조끼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으로 입는 의의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롬 13:14).

둘째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15절).

이것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싸움에는 침략전과 방어전이 있는데 신앙 싸움은 방어전이 아니고 침략전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려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듯이 신앙싸움은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방 안에만 있는 방어전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을 행하는 침략전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음 속에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16절).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악한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요일 5:4).

넷째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17절).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유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한 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다음에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18절).

전신갑주를 입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3 천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1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14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을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 정 예 배 셋째 주

감사해야 할 이유

성경 / 에베소서 1:3-14 · 찬송 / 200장, 202장

신명기 16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고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4절).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7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히 9:2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으며,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요 1:12).

셋째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8-9절).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며, 이미 드러난 것은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내 보여주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믿는 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셨습니다(고전 4:1).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13-14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롬 8:16).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므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8:1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28:2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8:3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128:4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28: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128:6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 정 예 배 넷째 주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성경 / 시편 128:1-6 · 찬송 / 256장, 258장

하나님께서 공동체 중에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탄도 알기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이브에게 접근, 유혹하여 최초의 범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가족들과의 불화를 조성하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시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본문은 묘사해 줍니다.

첫째, 남편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 주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 나타내야 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필요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므로 인해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 줍니다.

둘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결실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능력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아내,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녀는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나는데 그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숙의 과정이 길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녀가 성령 충만한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가정교육, 회당교육, 랍비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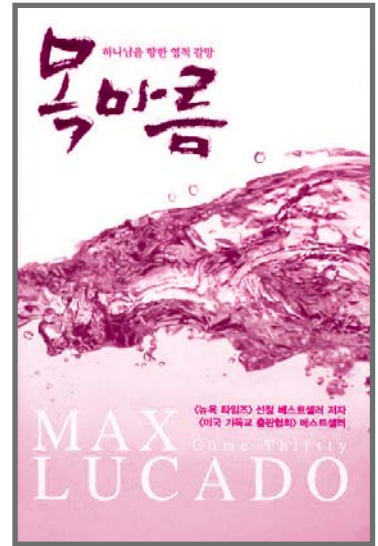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Come Thirsty)

빌 하이벨스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담임목사)
“맥스 루케이도의 메시지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소낙비처럼 내 영혼을 적신다.”

마이클 W.스미스 (예배인도자 겸 CCM가수)
“나의 목마름을 해소시킨 동시에 나를 목마르게 만들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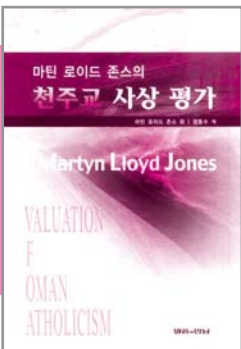
우리들에게 입이 바짝 타들어갈 때 목을 축이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크다. 마음이 굳어 영혼과 심령이 메말랐을 때 역시 무언가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켜야 한다. 이때,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에너지와 그 분의 다스림과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 책은 내면 깊숙이 메말라가는 내 영혼을 적시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로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자상하게 알려 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무언가 받는 일을 무척 어려워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생수를 양껏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맥스 루케이도 / 최종훈
도서출판 두란노 / 11,000원

WANGSIMNI 24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마틴 로이드 존스 외 / 정동수
말씀과만남 / 8,500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고 있고, 각계 각처에서 애도의 물결과 조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그 뿌리는 같을지 모르나 분명 교리적인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짚어보자.



현실적인 솔로몬의 솔직한 성공법칙

로버트 제프리스 / 최요한
조이선교회출판부 / 9,500원


우리는 항상 크고 멋진 꿈을 꾸지만 정말로 “꿈만 꾸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실제로 가능한 일들이다. 무엇이 꿈을 현실로 가져오는가? 그 해답을 '잠언'에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자.

우 르르 워십 (CD)

우르르의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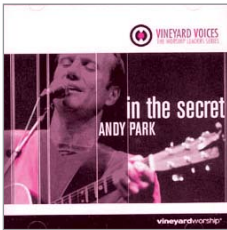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르르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경배 드릴 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르르 돌아오며, 모든 족속이 우르르 나와 주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때에는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졌듯이 사탄의 세력이 우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우르르...우르르...’ 이런 의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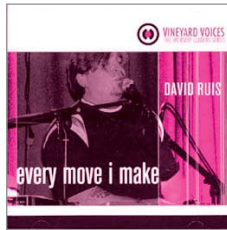
장충교회 4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이들은 영성과 음악성, 지성과 감성, 청년과 장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고, 풍부한 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 음반에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이 묻어나온다. 



우르르 / 두란노 Music / 12,000원



In the secret-Vineyard Voices
Andy Park / 힛서뮤직 / 13,000원



Every move I make-Vineyard Voices
David Ruis / 힛서뮤직 / 13,000원

빈야드의 새로운 음반들 (New Released albums)

전 세계에서 빈야드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 그 정도로 빈야드교회가 예배음악(praise & worship)에 기여해 온 영향은 아주 크다. 이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빈야드의 목소리 (The Worship Leader Series-Vineyard Voices)는 현대 예배음악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거장 워십리더들이 한 앨범씩 자신들의 노래와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리즈로 이번에 <앤디 파크의 In the secret> <데이빗 루이스의 Every move I make> 두 타이틀이 발매되었다.

‘Only You(오직 주님만), The River Is Here(주님의 강이), Every Move I Make(내 모든 삶의 행동), Mercy is Falling(주의 자비가 내려와)’ 등 각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10여 곡의 노래들을 전혀 다른 느낌의 모던 스타일로 새롭게 편곡했다. 아마도 이번 시리즈는 빈야드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반가운 앨범이 될 것이다.

쉴티와 함께하는 모던 워십

이 음반은 국내외에 이미 명반으로 알려진 <Shout To The Lord! Kids 1집>의 한국어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린이 음악 선교단 ‘쉴티’와 여러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함께 만들어낸 음반이다. 수록곡 하나하나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모던워십의 명곡들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와 영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하다.



쉴티와 함께 / 인피니스 / 12,000원

사랑의 나라 비전 스쿨

주일날 원거리 성도들의 오후 찬양예배 참석을 위해 자녀들을 돌보는 '사랑의 나라 비전 스쿨(지도 김희정 전 목사, 박영 강도사)'이 개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재능을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택견, 악기연주(플룻, 클라리넷), 독서 지도, 미술 지도등으로 구성됩니다. 택견은 무료이며, 독서 및 미술은 교재비 본인 부담, 악기연주는 저렴한 레슨비를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강사들에게 문의하기를 바라며, 비전 스쿨로 인해 오후 찬양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항 목	시 간	강 사	연 락 처	레 스 논 비
택 견	주일 오후 1:30~2:30	유하수 집사	011-752-6414	무 료
플 룯	주일 오후 2-3시, 3-4시	차지원 집사	010-3317-0419	3개월 8만원
클라리넷	주일 오후 1~2시			3개월 8만원
플 룯	토 4~5시 주일 11:30~12:30	이정희 교사	011-9043-9200	월 5만원
독서지도법	주일 오후 3~4시	김애숙 집사 최지영 집사	017-311-5980 011-9838-6020	12주 3만원 (교재비, 책값)
미술 지도(예정)	주일 오후 3~4시	차주영 자매 홍경민 자매	017-304-2989	12주 3만원 (재료비, 간식)



독서 지도법 1학기 수업 계획안		
	A 반(유년부)	B 반(초등부)
1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나의 홈페이지 만들기
2	부모님께 편지쓰기	시가 있는 풍경
3	맞춤법 알기	일기 쓰기
4	책과 함께	책과 함께
5	이야기 바꿔 쓰기	중심 문장, 보조 문장
6	본대로 느낀대로 쓰기	기사문 만들기
7	책과 함께	책과 함께
8	독후 감상글 쓰기	인물과 편지글
9	시 감상 및 쓰기	설명문 쓰기
10	생활 글쓰기	논설문 쓰기
11	책과 함께	책과 함께
12	독후 감상글 쓰기	방송 대본 쓰기





FOOD

연어레몬구이

화창하고 하늘 맑은 봄날에는 레몬과 함께 한 상큼한 맛과 향이 좋은 연어구이도 팬찮을 듯 싶은데요. 자연산 연어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통조림이나 냉동 연어로 자연산 연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재료

연어 300g, 레몬 ½개, 백포도주2큰술, 레몬버터소스(레몬½개, 버터2큰술, 파슬리 다진 것1작은술), 소금·흰후춧가루·식용유 약간씩

• 맛내는 비결

연어는 살이 연하고 지방이 많아서 구이용으로 제격. 연어에 레몬즙을 뿌리면 연어살이 단단해지며 상큼하고 향긋한 레몬 향이 배어 풍미가 더욱 좋다. 레몬 대신 라임을 써도 좋다.

• 만들기

1. 연어살은 물기를 닦는다. 레몬은 반은 슬라이스하고 반은 연어에 즙을 짜서 뿌린다.
2. ①의 연어에 백포도주를 뿌리고,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둔다.
3. 팬에 기름을 둘러 달군 후 연어를 얹고 연어 속까지 익도록 팬 뚜껑을 덮어 굽는다. 연어살이 얇으면 뚜껑을 열어놓고 굽고, 한쪽에 슬라이스한 레몬을 얹어 함께 굽는다.
4. 팬에 버터와 레몬즙, 파슬리 다진 것을 넣고 살짝 끓여 향긋한 레몬버터소스를 만든 뒤 구운 연어에 얹어 낸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기도회
 • 새벽 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 오전 11시
 •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 오전 9시
 유·초등부 2부 :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 오후 1시

몽골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김재영 장로 지도 : 이승민 목사
 주관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장숙현 집사, 임현석, 홍지혜, 이수정
 사진 : 차주영 미술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객원기자 : 배승원 신입기자 : 서주은, 김수연, 김여진, 김연주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85-4109)